



국내 수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있는 고창 '참바다' 영어조합법인(대표 김중학)이 식품가공산업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웰빙식품가공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창군, 웰빙식품 가공공장 오픈

사업비 98억원 투입... 스파이얼 프리저·터널 프리저 등 자동화 시스템 갖춰

국내 수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있는 고창 '참바다' 영어조합법인(대표 김중학)이 식품가공산업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웰빙식품가공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은 지난 15일 부인면 용산리 복분자 농공단지 내 (822, 840번지)에 위치한 웰빙식품 가공공장에서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과 기관사회단체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공장 오픈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웰빙식품 가공공장'을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5719㎡ 규모로 지난해 12월 완공했으며 올 상반기 임대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참바다(영)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참바다(영)는 제4공장인 웰빙식품 가공공장에서 심심하고 깨끗한 수산물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가공공장 내에 초고속 냉동기인 스파이얼 프리저와 터널 프리저, 튀김라인과 레토르트 라인 등 4억원을 투입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후

후 10억원의 추가 설비투자를 진행해 최첨단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만 400억의 매출을 올린 고창군 토종기업인 참바다(영)는 가공공장에서 장어구이와 간고등어, 새우튀김 등 각종 수산물을 가공해 흡소킹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 종합식품회사로 지역 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힐링과 노후준비 메카로 '인기'

건강장수 힐링교육 2800여명 교육 수료... 바른식생활교육·당뇨교육 등

순창군이 힐링과 노후준비 메카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교육생이 몰려들고 있다.

군은 11일 현재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노후준비 및 건강장수 힐링교육을 총 50회 실시해 2,8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숫자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주거지역이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경북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어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노후준비는 물론 힐링분야에서도 전국적 체면교육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걸 입증하고 있다.

또 12월까지 2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어서 올해 교육생은 3,000천여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노후준비교육,

바른식생활교육, 태초머거리 리더자 양성교육, 당뇨교육, 건강장수 힐링 및 식문화 도농교류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교육 일정도 1박 2일에서 3박 4일까지 다양하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노후설계교육을 시작해 이미 고령자와 은퇴자들이 이인정하는 노후설계교육의 메카로 올라섰고 최근에는 순창의 힐링자원과 건강한 먹거리를 활용해 건강까지 챙기는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난 14일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바른머거리 4기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7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45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교육에서도 부산 10명, 서울 9명, 경기 14명 등 건강장수 연구소 교육이 전국단위 교육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부산에서는 심상령씨는 "전에 교육에 참여한 친구의 권유로 이번 교육에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크다"고 말하며 "특히 이계호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 전하는 지식이 큰 도움이 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건강에 좋은 음식 등을 만들어 보는 등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배워 들어가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군은 교육생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고 교육생들이 지역의 힐링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농연체관, 식문화학습관을 조성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산야초공원 등을 조성 중에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고창멜론,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대통령상 수상'

최고의 멜론으로 '우뚛'

달콤하고 감미로운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고창멜론'이 2016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심사에서 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브랜드로 우뚛 섰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심사'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주요 과일과 과채류 생산 품목 중 전국 시도의 추천을 받아 최고의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고창멜론'이 대상 수상의 쾌거를 올리며 오는 23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종합평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창멜론'은 넓은 평야와 맑은 하천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주야간 온도차, 게르마늄 등 미네랄을 함유한 황토와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멜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명성을 확인한 셈이다.

군은 그동안 고품질 고창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 토양과 병해충 관리, 공동선별을 통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로 품질을 유지했고 정기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농가별 1:1 현장컨설팅 추진과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고창멜론'은 이번 수상에 앞서 올 9월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도 선정돼 소비자와 산화전문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실제로 도매시장 경쟁매가격이 타 시군 멜론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수박과 복분자, 풍천장어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특산물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사랑받고 있다"며 "여기에 고창멜론이 또 하나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 유통 지원을 통해 고품질 명품 멜론 생산과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인기'

횡단보도 건너기·교통 표지판 식별하기 등 교육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이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관내 및 주변 지역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으로 큰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다.

2006년 개관한 남원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교육 등을 통해 방문하는 등 매년 8,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강사 선생님들의 사고사례 간접경험을 통한 생동감 있는 맞춤형 안전 교육으로 안전교육의 효과가 좋다고 느낀 어린이시설들의 입소문을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임실, 순창, 곡성, 구례 등 주변 지역 어린이들도 방문하는 등 타 지역의 이용률이 활성화되고 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각종 교통 표지판과 횡단보도, 신호등, 철길 모형 등 실제 도로 환경과 비슷한 교육장

이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서 관내 유치원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건너기, 교통 표지판 식별하기, 어린이에게 자주 일어나는 10대 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조기 교통안전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통질서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자녀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께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설을 잘 활용하여 알찬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소방안전교육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와 함께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서 자위소방대 및 순창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소방차, 구급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피난 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대처능력을 향상과 함께 지진발생시 대응요령 등 직원들의 재난 대응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화재 발생에 따른 자위소방대원들의 화재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영철 기자

고창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에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전후 사천 예방·홍보활동과 더불어 가시적 순찰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마쳤으므로 마치 성인 되었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한 음주 등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고창경찰은 고창교육청, 교사, 패드블람, 자율방범대 등과 청소년 밀집지역과 비행우려지역 가시적 순찰과 함께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및 보호조치와 더불어 업주·종업원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등 유해행위 근절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절도 등 범죄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사업장 중심 민·관 합동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임실군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11월 중 민·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군은 가을철 막바지에 각종 건설 및 토목공사 등으로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환경감시원과 단속에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대기·폐수배출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시설, 무단방류 행위,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 공사장 등 차량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다·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각종 시설물 자체 점검을 실시해 민·관합동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사회복지팀, 목욕서비스 진행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팔덕지회(회장 이봉두)는 최근 팔덕면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및 식사대접을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날 봉사활동은 할아버지 30명, 할머니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문을 연 팔덕면 작은목욕탕과 관내 휴먼소식당에서 진행했다.

특히 목욕봉사활동은 그동안 담양 원천에서 진행해 오던 것을 작은목욕탕에서 진행해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팔덕면민들만이 사용하는 작은목욕탕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봉두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철 기자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 이야기 벽화 조성 '회재'

임실을 성가리 일대에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 이야기, 임실을 성가리 역사를 주제로 벽화가 조성되고 있어 회재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문화관광 공간재창조사업, 꿈에 본 내 고향' 공모에 선정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디자인 우리동네(대표 신주환)'가 맡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1964년 지정환 신부가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후 주민들과 함께 치즈를 만든 이야기와 임실읍치(邑誌)였던 성가리의 역사가 담겨진다.

이와 함께 지정환 신부와 마을주민이 치즈공장 및 숙성실로 사용한 토

굴 주변을 전시설 및 휴게공간으로 복원하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이달 중 착공할 계획이며 새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벽화 작업을 지켜본 마을주민은 "노형' 공모에 선정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디자인 우리동네(대표 신주환)'가 맡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벽화를 통해 지정환 신부가 만든 국내 최초의 치즈공장을 비롯해 예로부터 임실군이 주변으로 형성된 성가리의 오랜 역사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